

## 現代哲學과 『人間』 問題(6)

- 특히 『루넛산스』와의 關聯에서 -

朴致祐

自然科學的 또는 概念論的 抽象에 잇서서는 時間과 空間은 普通相互獨立한 두 개의 範疇를 차지하는 것이나 그러나 問題가 우리와 가티 『實踐』을 싸고 도는 限이 兩者는 決코 그 가티 손쉽게 分難될 수는 업는 것이다.

實踐的 時間은 地球의 公戰을 規準삼아 分割配列된 그러한 『主體性』을 缺한 時計的 時間도 아니며 이와 同時에 體驗(意識)內容의 持續樣式으로시의 時間-例컨대 現象學的 時間 또는 『베르손』의 所謂 純粹 持續과 가튼 그러한 『客體性』을 缺한 時間일 수는 업다. 實踐的 時間은 그를 通하여 自然이 내 것으로 變革(生産)되며, 이 自然의 人工的 變革을 爲하여 頭腦와 意識이 酷使되는 그러한 主體, 客體的인 時間인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空間을 처음부터 本質的으로 內包하고 잇는 時間인 것이다. 그리고 實踐的 空間도 또한 幾何學的 空間, 物理學的 空間, 天文學的 空間과 가튼 그러한 『主體性』을 缺한 空間일 수는 업는 것이며 이와 同時에 心理學的 空間, 現象學的 空間과 가튼 그러한 『客體性』을 缺한 空間일 수는 업는 것이다. 그것은 實로 自然의 人工的 變革이 그 우에서 遂行되며 頭腦와 意識이 그 우에서 雇用되는 그러한 客體, 主體的인 空間인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本質的으로 時間을 內包하고 잇는 空間인 것이다. 時空의 辨證法的 統一이라는 理論的으로는 極히 어려운 問題도 實踐 특히 生産的 實踐에서는 原始的 所與로서 모-든 理論 以前에 顯現한 事實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歷史的 時間 即 歷史生成的 時間과 社會的 空間 即 社會形成的 空間은 決코 分難하여 생각해서 아니 되는 것이다. 歷史란 結局 社會의 時間 相에 不外한 것이며 社會란 結局 歷史의 空間 相에 不外하기 때문이다. 人間的 實踐--生産的, 政治的, 道德的 實踐 등이 가지는 바 主體와 客體와의 具體的인 全體로서의 『現實』이 보담 더 時間의 角度에서 보아질 때 그것은 『歷史』라는 姿態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보담 더 空間의 角度에서 보아질 때 그것은 『社會』라는 形態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잇서서는 언제나 『歷史

的, 社會的』現實만이 참된 『現實』인 것이다. 우리가 우에서 『現實的』이라는 述語 代身에 종종 『歷史的, 社會的』이라는 合成 單一語로 이에 代用할 수 있겠든 것도 이러한 意味에서만 容許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나의 一生을 맞추도 오히려 不足할 이러한 時空論을 度開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우리가 말하는 純粹 人間은 時間과 空間을 떠난 人間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때의 時間과 空間이란 實踐的 時空만을 意味할 것이며 따라서 純粹 人間이란 結局 우리에게 있어서 歷史的, 社會的 現實을 떠난 人間을 指摘하게 된다는 點을 말하고 심헛슴에 不過한 것이다.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가티 純粹 人間の 構成條件은 『有閑性』인 것이다. 그러나 『昨日의 有閑』이나 『明日의 有閑』이 純粹 人間을 만드려 낸다기 보담도 事實은 根元的으로는 『今日의 有閑』即 『有閑한 今日』만이 만드려 내는 것이라고 보는 便이 妥當한 見解일 것 같다. 우리가 었던 사람을 有閑人이라고 부를 때의 그 사람은 반드시 『有閑한 今日』을 가진 사람만을 指摘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인들 땀흘려 일만 하기를 질기리오만은 그렇타고 『完全한 有閑』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無氣力한 生活임에 틀림 업는 것이니 이러한 有閑한 今日의 無氣力함을 消散식히기 爲하여 만드려지는 것이 다름 아닌 純粹 人間인 것이다.

初期 新興 市民人은 그러나 『明朗한 明日』이 約束되엿섯슴에도 不拘하고 『無閑한 今日』 때문에-即 封建勢力과의 싸움에 寧日이 업섯던 關係로 아직 이러한 純粹 人間을 構成할 겨를이 업섯든 것이다. 그러나 漸次 安定期에 드러서자 이 惡習이 비로소 나타나기 始作하엿든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安定期의 有閑性이 지여낸 純粹 人間을 特히 獨逸 理想主義의 樂天的, 浪漫的인 人間觀에서 가장 典型的으로 볼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安定期를 지나 漸次로 下向의 길을 밟겨되자 이러한 樂天的, 浪漫的 人間觀은 자취를 감초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下向期의 有閑性이 지여낸 純粹 人間을 우리는 오늘의 所謂 實存哲學의 諦觀的, 絶望的인 人間觀에서 차저볼 수 잇는 것이다. 『樂天的, 浪漫的』對 『諦觀的, 絶望的』이라는 兩者의 性格的 差異는 安定期와 下向期라는 兩者의 時代的 背景의 反映이라고 못할 것일까? 前者가 『明朗한 明日』을 가진 有閑性의 作亂의 所産이라면 後者는 『憂鬱한 明日』을 가진 有閑性의 咏嘆의 所産이라고 못할 것일까?

새로운 人間타입에로의 質的 止揚은 그러나 다만 『無閑한 今日』과 『明朗한 明日』을 가초아 가진 사람의 손에 依해서만 可能할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先例를 멀리 求할 것 업시 저 初期 市民人 그들이 바로 이러한 今日과 明日을 가졌든 것이 아닌가? (完)